

## 과학으로 살펴본 중앙아시아 목제편의 채색안료

고수린,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중앙아시아의 아스타나 고분은 중국 투루판시를 기준으로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막길이라고 부르는 실크로드를 따라 20세기 초 수많은 탐험대들이 탐사하였던 이곳은 투루판 지역의 매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고분 내부에 매장된 대부분의 유물들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부재인 목제편에 채색된 안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하면 녹이 슬거나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빛깔도 퇴색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타나 고분 출토 목제편은 형태는 물론, 상단에 채색 재료의 색상도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재료들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비파괴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색안료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선 형광분석(XRF)을 이용합니다. 엑스선 튜브에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분석 대상을 타격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소들의 형광파장을 조사해둔다면, 미확인 물질들이 가진 파장들을 비교해서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한 원소를 기본정보로 하여 엑스선회절분석(XRD)을 하면 해당 물질이 어떠한 결정구조를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정구조의 해석을 통해서 목제편의 백색 바탕은 경석고, 적색 문양은 진사, 주홍색 동물의 다리는 연단, 동물의 발은 연백, 적갈색 선은 산화철, 녹색 구름은 녹염동광, 흑색 선과 구름줄기는 먹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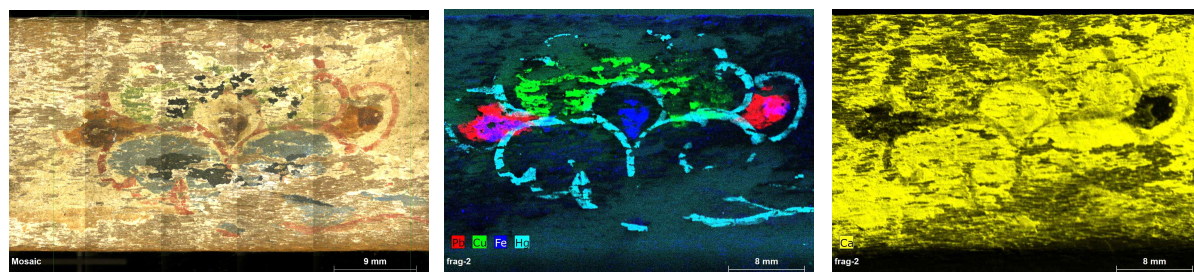


그림1. 아스타나고분 출토 목제편에 사용된 채색안료의 엑스선형광분석 이미지

## 특별전<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9)

- 『외규장각 형지안』으로 보는 외규장각의 운영-

김진실,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외규장각外奎章閣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던 보물창고였습니다. 한양의 궁궐 창덕궁에 있던 규장각奎章閣에 비견될 만큼 왕실 구성원의 각종 책보와 어제어필, 왕실에서 펴낸 각종 서적들이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각신들이 봉심과 포쇄를 위해 1년에 한번 씩 외규장각으로 왔습니다.

병인양요(1866년, 고종 3) 때 프랑스군의 약탈과 방화로 인하여 외규장각은 건립된 지 8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규장각의 각종 봉안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작성되었던 『외규장각 형지안』이 남아 있어 당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각종 책보와 함께 봉안되어 있었던,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의궤들은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지안에는 이 의궤들의 목록이 언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치되어 있던 의궤 약 660여 건 중에 약탈당하여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297건이었습니다. 약탈 직전 외규장각에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서	북 좌탁		별1가	별2가	별3가	북 우탁		동
	2탁	소탁	정간 구역			소탁	2탁	
			정간 좌탁 큰 궤櫃	정간 봉안장 (3층)	정간 우탁 궤 3개			
	1탁						1탁	
			남, 출입문					

그림1. 1857년(철종 8) 형지안으로 추정한 외규장각의 내부 구조



제706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2월 28일)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120호 대한제국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에는 38,000여 장의 방대한 수량의 유리건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당시의 고적, 유물, 유적, 건축, 인물, 풍속 등을 망라하여 사진으로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식민지배를 위해 남긴 고도의 문화정책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규모의 사진자료는 오히려 역사자료가 부족한 우리 근대시기를 재조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유리건판의 사진에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 인류학, 민속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유리건판에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큼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사회적, 문화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하고 놓쳐버린 구체적인 역사의 단편들을 유리건판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왜곡되고 파괴되었는지도 유리건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건판은 1871년 영국인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 1816~1902)가 브롬화 은 젤라틴유제를 유리판에 도포한 건판을 발표함으로써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흑백사진필름의 원형으로 유리원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건판은 종래의 콜로디온 습판(濕板)에 비해서 화상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보존성도 뛰어납니다. 또한 감도와 편의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노출시간이 단축되어 순간촬영도 가능하였습니다.

초기 유리건판 제조는 소규모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업생산물로서 본격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이후 유리건판 크기를 규격화하여 표준판인 소판( $4\frac{3}{4}" \times 6\frac{1}{2}"$ )과 중판( $6\frac{1}{2}" \times 8\frac{1}{2}"$ ), 대판( $10" \times 12"$ ) 등 다양하게 생산 및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의 크기는 소판, 중판, 대판, 명함판 등 4종으로 분류되며, 평균적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 판: 건판 크기 119×164mm, 화면 크기 115×160mm, 두께 1.35mm
- 중 판: 건판 크기 164×214mm, 화면 크기 163×208mm, 두께 1.35mm
- 대 판: 건판 크기 252×303mm, 화면 크기 247×297mm, 두께 1.5mm
- 명함판: 건판 크기 82×107mm, 화면 크기 79×105mm, 두께 1.35mm

소장된 유리건판 38,000여 점 가운데 소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85.6%로 가장 많고, 대판이 약 8.5%, 중판이 약 4%, 명함판이 약 1.9% 정도입니다.

1930년대 독일 정밀기계공업의 산물인 라이카와 콘탁스 등 롤필름을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가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유리건판의 일반적인 수요는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그림1. 유리 건판



## 통일신라시대 축지인 불상

양수미, 301호 불교조각실 19:00~19:30

불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불상의 존명尊名과 상을 만든 날짜, 목적, 만든 사람 등에 대한 정보를 적은 명문이 있다면 가장 정확하게 그 불상이 어떤 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 불상들 가운데 많은 수는 상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불상의 손갓춤 즉, 수인手印은 그 상의 존명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인에는 모든 부처가 취할 수 있는 종류도 있고 비로자나불의 지권인智拳印처럼 특정한 부처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유행하는 수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항마축지인降魔觸地印은 왼손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놓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서 무릎 아래로 내린 모습의 수인입니다. 이 수인은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인으로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성도成道할 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친 증인으로 지신地神을 불러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하였다는 불전佛典의 내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크게 유행했는데, 석굴암 본존불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그림1).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 형식의 대의大衣를 입고 왼손을 내려 축지인을 맺은 형식은 이후 우리나라 불상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자리 잡아 석가불이 아닌 다른 존격의 상에도 적용되는 등 고대 한국 불상의 한 전형을 이루었습니다(그림2).



그림1. 석굴암 본존불, 통일신라 8세기 중엽,  
국보, ©국립문화재연구원



그림2. 석조약사불좌상,  
통일신라 8세기, 본관1957